

문화 단신

성각스님 선화전

성각스님(남해 방운암 주지)이 17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운현궁 미술관에서 선화 특별전을 갖는다. 성각스님이 수행 틈틈히 그린 달마도, 관음도 등 그림과 글씨 50여점이 전시되는 이번 특별전의 수익금은 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정을 돕는데 쓰인다. (02)766-7967

전향섬씨 목각전



불자 조각가 전향섬씨의 제4회 개인전 '보이지 않는 나무'전이 17일부터 23일까지 서울 공평동 공평아트센터에서 개최된다. 명상과 사색을 통해 내면의 흐름을 좇아 나무의 본질에 접근해 공간과 공간, 시간과 시간, 인간과 인간,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탐색해온 전씨는 이번 전시회에서도 '소리의 문' (사진) '빛의 문' '시간의 문' 등 순환론적인 세계관을 표현한 목조각 40여점을 선보인다.

찬불동요 창작곡 6집

어린이 찬불동요만을 전문적으로 펴내고 있는 '좋은 벗 풍경소리(대표 화평스님)'가 어린이 찬불동요 창작곡 6집을 펴냈다. 이번 6집에는 운문스님 시에 이종만씨가 곡을 붙인 '회향', 대영스님 시에 조선재씨가 곡을 붙인 '좋은 벗', 환학현씨 작사 민선희씨 작곡의 '자비의 씨' 등 모두 16곡의 찬불동요가 들어있다. 노래는 김희형 정유탁씨, 이신자 한경진 곡은선 어린이 등이 불렀다. (02)3486-6418

백향주씨 '보살춤'

'남과 북의 춤사위'를 한몸에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북한 국적 재일교포 무용가 백향주씨(23·사진)가 29~30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서초동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관음보살춤' 등 춤 공연을 갖는다. 전설적인 무용가 최승희의 춤을 완벽하게 재현했다는 백씨는 이번 공연에서 '관음보살춤' 뿐 아니라 '우조춤' '초립춤' '칼춤' '무당춤' '고구려 무희' 등 7개의 최승희의 대표작 춤들을 선보인다.



경주남산 석불 그림에 담는다

김대규씨 87구 채색화첩으로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유력시되는 경주 남산의 석불 총 87구가 그림으로 옮겨진다. 남산은 보물 제63호 배리석불입상, 보물 제136호 미륵국 석불좌상, 보물 제199호 신선암마애보살반가상, 석굴암 조각에 견줄 수 있는 8세기 조성된 칠불암마애석불(보물 제200호) 등 독특하면서도 친근한 미소의 불상과 마애불들이 곳곳에 있는 노천박물관. 이 석불들이 8절지 크기의 채색 화첩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동안 남산 석불의 사진전이 열렸지만 남산의 모든 석불이 채색 그림으로 옮겨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가는 한국화가 로천(號家) 김대규 화백.

"여러번 경주 남산에 가 보았습니다. 신라인들의 불심과 예심을 잘 조화시키고 승화시켜 이루어진 남산은 신라인들이 후세인들에 남겨준 불국정토입니다. 그 친근한 미소는 천여년동안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귀의처가 되어 왔지요. 그런데 최근들어 석불들이 방치되고 날로 훼손되어 가는 현실이 안타까웠고 더욱 안타까운 일은 세계문화유산을 신청할 만큼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인데도 그 가치가 잘 안 알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이근우 석불문화연구회장님께서 그림으로 옮겨



◇김대규씨

세달작업 9월 문화엑스포 공개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이 어렵다고 제안하셔서 그때부터 구상에 들어가 자료들을 모으고 준비를 해 왔지요. 김화백은 이달달부터 본격적으로 그림작업에 들어갔다.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담기 위해 내주 다시 남산으로 석불 현장답사를 떠날 예정. 단순히 석불들을 그림으로 옮기는 것이 아닌, 그 모습과 미소가 나타내주고 있는 불교정신을 어떻게 제대로 표현해 석불을 직접 대했을 때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전달할까가 요새 그가 불고 있는 화두이다.

"한갓진 산비탈이나 계곡의 구석 구석에서 묵묵히 천년의 세월을 지내온 석불들은 날로 황폐해지고 있는 인간의 심성에 말없는 감로법문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림에서도 그 말 없지않아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법문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김화백은 3개월동안 오로지 석불그리기작업에만 전념해 화첩으로 만들어 9월 경주문화엑스포에서 전시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영문해설을 붙이고 표지는 남산지도, 화첩 말미에는 불상들에 대한 색인을 첨부한 그림책을 만들어 남산 석불들의 진면목을 널리 알리려는 계획을 밝힌다. 이경숙 기자(gsllee@buddhapia.com)

문화재보호법 개정 요청

성보보존위, 현상변경시 중단승인등

조계종이 개별 사찰의 합리적 불사(佛事)와 성보문화재 보존을 위한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개정 요청안'을 마련, 정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위원장 덕운스님)는 8일 제5차회의를 열고 전통사찰의 문화재 현상변경시 소속종단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 요청안을 논의했다.

이번 개정 요청안은 허가받지 않는 현상변경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가 및 관련 행정기관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 특히 종단이

재연구소장은 "현 문화재보호법상으로도 문화재지정 등 심의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시간이 너무 걸려 불만이 많은 실정"이라며 "분과 구성, 전문위원 위촉은 물론 문제가 많은 사항을 선별심사하는 등 합리적인 시행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덕운스님은 "현재 성보보존위원회는 내부적으로 분과가 구성돼 있고 지역별로 25명의 전문위원도 위촉돼 현장조사가 가능한 상태"라며 "앞으로 부족한 인력확충에도 힘써 효율적인 성보문화재 관리가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요청안은 전통사찰 보존법 제6조 1항에 근거한 것으로, 전통사찰이 △문화재 등 현상변경(15조)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또는 소지(17조) △관리자 선임(21조)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또는 현상변경허가(30조) 등을 신청할 때 소속종단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윤기석 기자(gsyoon@buddhapia.com)

감은사지 강당지등 문화부 사적 추가

문화관광부는 10일 사적 31호인 경주 감은사지의 건물지와 용연(龍蓮)을 사적으로 추가지정했다. 감은사지는 신라왕이 불력(佛力)

으로 왜구를 물리치고자 한 문무왕의 뜻을 이어 완공한 사찰이며, 용연은 죽어 동해유이 된 문무왕이 드나들 수 있도록 금당 아래에 관연못이다. 이번에 사적으로 추가지정된 지역은 3층석탑 북쪽에 있는 강당지와 회랑지 등 건물지와 절터 전면의 용연이다.



◇백종하씨의 사진 장경각

렌즈에 비친 팔만대장경

백종하씨 장경각등 40여점 해인사서 전시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 팔만대장경(국보 제32호)과 장경판전(국보 제52호)이 카메라 렌즈에 담겨 참배객을 맞고 있다. 사진작가 백종하씨(포토하우스 편집주간)가 4년여 동안 장경각 전경, 창살, 판가, 경관 등의 24시와 4계절의 변화에 따른 모습을 포착한 칼라사진 40여점을 8월 31일까지 합천 해인사 구광루 1층에서 전시하고 있다. 팔만대장경 해인사 이운 6백주년과 '98 사진영상의 해를 기념해 열리는 '장경각' 사진전은 현재 장경판전이 보수공사중이어서 출입통제가 실시되고 있고 행사에도 일반인들이 참관을 통해 들어갈 수 없다. 불 수벽에 없었던 장경각의 내부와 경관의 모습을 상세히 볼 수 있는 기회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경관제조과정과 실물경관 전시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VTR도 상시 상영하고 있어 세계문화유산 팔만대장경에 대한 교육적 효과도 거두고 있다. 한편 백씨가 찍은 장경각 사진 2종은 오는 12월 발간될 세계문화유산 등록기념 특별우표에도 담겨진다. 백종하씨는 "같은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와 불국사, 석굴암에 대한 사진집은 있으나 팔만대장경과 장경각에 대한 사진집이 없어 아쉬웠다"면서 "2~3년 더 작업한 후에 팔만대장경의 정신을 제대로 표현한 사진집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윤호 기자(yhlee@buddhapia.com)

불심시심 (132)

석 잔 술의 힘

白酒三盞力 맑은 술 석 잔의 힘으로
(백주삼배력) 푸른 산 심리의 길
靑山十里行 청산십리행
(청산십리행) 멀리보이는 어느 곳 절인가
遙望何處寺 (요망하처사)
巖下暮煙生 바위 아래 저녁 연기 일다
(암하모연생)

월하대의 '길 가다(途中)'라 제한 시이다. 길을 걸으며 뜻 없이 흥얼거리는 것 같다. 그저 소박하다는 말밖에 다른 표현이 필요없다. 나그네의 지친 걸을 술 기운으로 심리의 길을 걷는다. 여기서 이 석 잔이라는 삼배(三盞)와 먼 길의 십리(十里)의 대가 바로 대구적 시의 묘미인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삼배라는 작은 수의 힘이 십리라는 숫자의 극치인 이 먼 길을 감당해 주고 있는 것이다.

한잔을 넘어 정적에 가까운 나그네의 길에 일정한 유숙처를 예기하고 가는 것이 아니니, 오늘도 어느 절에서 잘 지기약이 없다. 멀리 저 바위 서리에서 연기는 저 바위이다. 연기가 있으니 절이 있었다. 어느 절일까. 역시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의 일이다. 이 구절도 이렇듯 표현의 묘를 가지고 있다. 연기가 이는 것을 보고 절이 있음을 안 것이 분명인데, 시의 표현은 그 순서를 뒤엎었다. 어느 곳 절인가 멀리 보인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바위 아래에서 연기가 인다는 것이다. 불가의 인명(因明)논리 같지만, 기실은 이런 것이 시인의 사물 뒤집기 논리인 것이다.

외로운 산 길을 석 잔의 술로 버티고 간다. 짐쳐 없는 곳이니 오늘은 어디서 쉬 것인가. 저기에서 연기가 보이니 거기에 절이 있나 보다. 오늘은 거기서 쉬어가지. 이것이 이 시가 지니고 있는 전편의 상통이다. 참으로 무미 단조한 인상이다. 그런데 시의 묘미는 오히려 여기에 있다. 그저 푸른 색과 흰 색으로 점철된 청산수사의 한쪽 채색화가 접하나라 구상시킨 나그네와 네모의 작은 구도로 숨겨질 듯이 보이는 절의 대칭이 바로 꾸밈이 없으면서도 무한의 수식을 내장한 화가의 묘수처럼, 이 시도 이러한 무한의 수식을 간직하면서도 수식이 드러나지 않는 묘수를 가지고 있다. 대사의 시를 평한 이들이 간결고하여 작가의 기풍을 간직했다 함이 이런 면을 두고서 절도 이렇듯 표현의 묘를 가지고 있다. 연기가 이는 것을 보고 절이 있음을 안 것이 분명인데, 시의 표현은 그 순서를 뒤엎었다. 어느 곳 절인가 멀리 보인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바위 아래에서 연기가 인다는 것이다. 불가의 인명(因明)논리 같지만, 기실은 이런 것이 시인의 사물 뒤집기 논리인 것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방한외국인 처음찾는곳 박물관

외국인이 한국방문 중 가장 먼저 찾는 곳은 박물관 고궁 등 문화시설(60%)이며, 내국인의 61%는 박물관을 두 번이상 방문한 것으로 조사돼 박물관이 단순한 볼거리가 아닌 문화시설로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이 쾌적하고 편안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람객 총 6백88명(내국인 4백82명, 외국인 2백04명)을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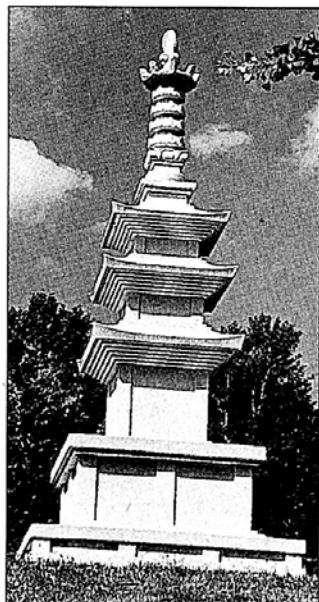
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람중 불편사항으로 외국인은 단체관람으로 인한 실내소란과 언어소통의 불편을, 내국인은 전시실 유물설명자료의 부족을 지적했고 △기념품은 내외국인 모두 저가의 복제품, 엽서, 서적 등을 선호하면서도 외국인도 다양하고 특색 있는 기념품의 부족을, 내국인은 가격(35%)과 다양성(51%)에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밖에 박물관 정보는 신문, 친구·친지, 인터넷 등에서 얻고 있으며 만남의 장소, 식수대, 유모차, 현금지급기, 배배콜서비스 등 편의시설 설치를 원하는 관람객도 있었다. 윤기석 기자

성·동·석·재·불·사·공·예·사 불교석재조각의 진수를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랜 전통과 최고의 작품으로 모시는 것이 불교석재조각의 대가 성동석재불사공예사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20여년 동안 쌓은 섬세한 조각기술과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불교문화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최고의 작품조성으로 보답하고자 하오니 고승대덕 큰스님 및 불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대표 김성수 합장



성동석재불사공예사 전 화 : 0357)31-8736 호 출 : 012)321-6044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성동 5리 822-2 팩 스 : 0357)31-5549 핸드폰 : 011)284-510

지금 전국 유명서점 및 북교서점에서 정산권 판매중...

"인생은 오행따라 산다"

벽담 김원식 큰스님의 승남 42년 동안의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역작



저자 : 벽담스님 / 가격: 7,000원

- 명확한 인생의 길잡이, 확실한 대답.
- 한번 보고 버리는 책이 아니라, 인생살이 굵이 굵이마다 지침서가 되는 책!



철학박사 벽담 김원식 스님

목 자

1. 역을 알면 말세는 없다.
2. 오생육성을 알면 민사를 안다.
3. 성격도 오행으로 알 수 있다.
4. 직업, 사업적성은 성공을 보장한다.
5. 음양적으로 인체 생리와 질병을 안다.
6. 오행을 알면 자기병을 안다.
7. 좋은 약도 오래 먹으면 병을 만든다.
8. 오행으로 비만증을 해결한다.
9. 오행으로 두뇌가 좋아질 수 있다.
10. 궁합은 당신도 맞출 수 있다.
11. 수매이 사람에게 해(害)만 주는 것이 아니다.
12. 재력으로 성격·직업을 안다.
13. 관상이 말을 한다.
14. 얼굴 부위로 필자를 안다.
15. 수상도 운명을 좌우한다.
16. 이름이 좋아야 출세를 한다.
17. 당초도 잘 지어야 한다.
18. 심호가 좋아야 성공한다.
19. 풍수지리설은 실이 있다.
20. 터가 좋아야 부자가 된다.
21. 집이 가운을 좌우한다.
22. 현세에도 묘지의 명당은 필요하다.
23. 이사 방위, 택일도 좋아야 한다.
24. 택일 택시가 길흉을 가름한다.
25. 심자란 무엇인가? 등 ...

도서 출판 대흥기획 02)735-7202/02)738-6270 ■ 저자 : 부산 개운사 051)521-4848/051)532-1458